여성신문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1991년 8월 23일 발행/제137호

현대 핵가족

미래사회 자녀교육 어렵게 한다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연차대회서 문용린 교수 밝혀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족은 가부장적 권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미래사회의 자녀교육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3·14일 한국여성사회교육회(회장 김지자)가 '21세기를 향한 가정교육'을 주제로 마련한 연차대회 및 제2차 정기총회에서 나온 것이다.

연차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족 형태는 "핵가족은 핵가족이되 가부장적 권위가 그대로 잔존하는 괴상한 형태의 핵가족"이라는 것. 이처럼 일그러진 가족형태로는 21세기를 살아나갈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핵심이었다.

문 교수가 지적한 이러한 잘못된 가족 형태의 원인은 가장들의 정체감 혼란에서 찾아진다.

가문 중심의 가족에서 자란 우리 사회 남성들은 가족중심적 사고를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기가족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다. 예를 들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하는 시가 측과 냉전을 벌이고 있는 부인 사이에서 자기의 입장선택을 명백히 하지 못한 채 불끄기에만 전력하고 있는 것이 요즘 가장들의 모습이라는 것. 또 가장의 정체감 혼란은 자녀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아이들은 가부장적인 부모의 간섭과 명령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저항하고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

또 문 교수는 앞으로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에 국한될 것이므로 인격, 성격, 품성, 도덕성 등에 대한 지도와 학습의 영역은 주로 가정교육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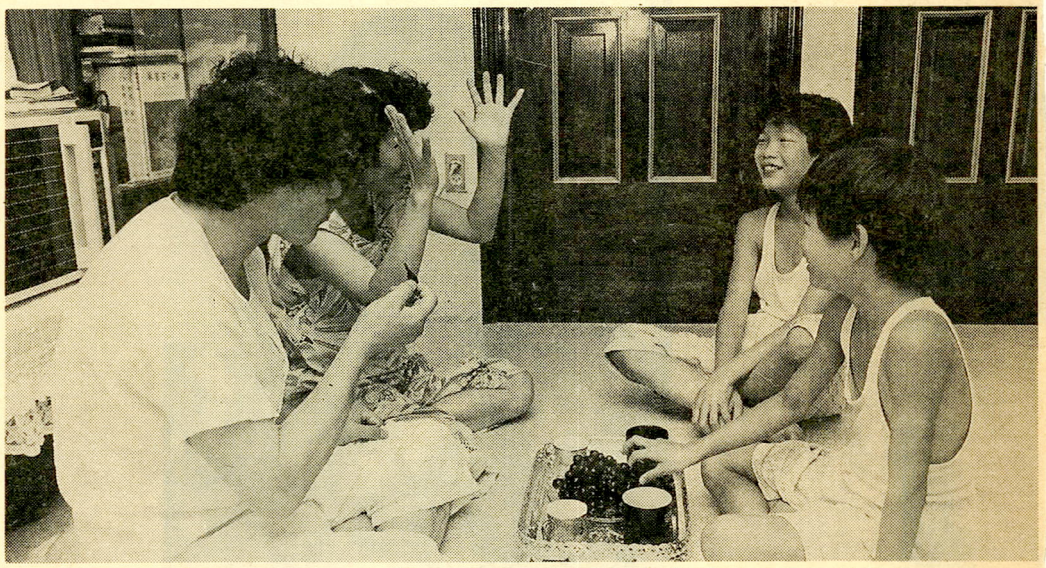
따라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모들은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위해 첫째, 아내와 남편, 아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폭증하는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통제하고 흡수해야 한다. 또 토론과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도덕성을 교육시키는 것도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

문 교수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 제기되는 작은 문제기사를 중심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식의 단순한 모임부터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이 행사를 마련한 한국여성사회교육회는 여성의 사회교육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9일 창립됐다.

김지자 회장은 "연례 세미나와 소식지 발간, 여성사회교육 관련 연구와 출판 등을 통해 여성사회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21세기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 부모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 제기되는 작은 문제기사를 중심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식의 단순한 모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